

이낙연 내년 1월 신당론에도 '침묵' 길어지는 이재명 대표

이낙연이 요구한 대표 사퇴 수용 못해 타협책 전무 준연동형제 수용으로는 이 전 대표 만족 못 시켜 “이낙연 설득할 방도 없으니 관망하는 것 아닌가”

이낙연 전 대표가 내년 1월 신당 창당까지 시사했음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의 침묵은 신당을 창당하려는 이낙연 전 대표를 설득할 카드가 없어서다. 이 전 대표가 요구하는 대표직 사퇴와 일부에서 요구하는 불출마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이다. 이 전 대표가 이 대표에 줄 수 있는 타협책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 정도 뿐이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당의 비민주적 시스템 타파와 공정한 공천 등을 위해 이 대표의 사퇴가 필수적이라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 전 대표와 이 대표 간 회동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이 전 대표와 만날 뜻을 밝혔지만 공식 제안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단합과 소통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열어놓고 소

통하고 대화하고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려면 가능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배제의 정치가 아닌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의 화합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인 이 전 대표를 직접 만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이를 거부하면서 회동 가능성은 일단 불투명해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일 YTN에 출연해 “민주당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의지가 확인된다면 오늘이라도 만나겠지만, 지난번처럼 사전 한장 찍고 단합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당내에선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이 대표가 제시할 카드가 많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강성 지지층과의 결별,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등을 이 대표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중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요구는 타협의 여지가 있으나 이 전 대표를 만족 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하는 준연동형제 유지가 시대 요구에 맞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에 공감을 하면서도 선거제 문제를 두고 여당과 각을 세우는 현실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의 도덕성 회복 등을 이유로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 내년 총선 불출마 등을 요구할 경우 명목회동이 ‘빈손 회동’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재선 의원은 “내년 총선을 이끌어야 할 이 대표로선 사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요구고, 이 전 대표 역시 선거대책위원장 등 자리를 받아도 거부할 것”이라며 “상황을 뒤집을 방도가 없으니 이 대표가 관망 모드로 전환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 가시화되자 친명계는 ‘절제 모드’로 전환하며 이낙연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두환·노태우 시절의 민주한국당 이후 안철수·손학규로



이어졌던 일종의 정통 여당과 다른 사쿠라 노선”라고 비판했다. 오기형 의원은 “민주당의 대표를 지낸 분으로서 당을 강화하고 확장하기 위해 조용히 도

와줘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오히려 당의 분열과 갈등의 과정의 축으로 나서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면기자

제33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12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1일과 22일 진행된 제332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였다.

금번 정례회는 지난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25건을 처리하였다.

그리고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2024년도 예산안과 일반안건 등 총 11건에 대하여 최종 의결하였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해남군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 발의) 등 2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

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24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및 일반 안건 등 6건을 원안가결 하였다. 또한 202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24년도 예산안, 해남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여 상정된 2024년도 예산안은 총무위원회 소관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증축 실시실제 용역비, 우수영 관광지 주차장 임차비, 해남 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경로식당 신축공사비 등 3건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8,525억여원과 특별회계 300억여원으로 최종 8,825억여원으로 수정가결하였다.

김석순 의장은 “한 달 남짓의 회기 기간 동안 현지 확인 및 안전 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에도 해남군의 밝고 힘찬 도약을 위해 소통하고 협치하여 군민에게 희망찬 미래를 안겨주는 신뢰받는 선진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산회를 선포하였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원의 친명계 “이낙연, 공천 투쟁 그만하고 정계은퇴해야”

“모범이 되어야 할 원로가 욕망의 정치해”

친명(이재명)계 원의 모임인 ‘더민주전국 혁신회의’는 12일 최근 신당 창당을 시사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공천 투쟁은 그만하고 정계 은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전 대표가 갈 길은 민주당과 싸우는 신당 창당이 아니라, 민주당을 살리는 정계 은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대다수 당원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보에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며 “이 전 대표는 당원들이 뽑은 대표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신당 창당을 운운하고, 소수의 중진 의원들은 사조적을 만들어 당원들과 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본인이 당권을 갖고 싶다는 것 아닌가”라며 “당원들에 의해 선택받지 못했지만 당권을 차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과연 민주주의에 합당한가”라고 했다.

이들은 “이 전 대표는 대다수 당원을 비이성적, 감정적 존재로 치부하며 멸시한다”며 “그래서 자신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너무나 부끄러운 생각”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의 가장 부끄러운 장면이었던 두 번의 군사 쿠데타의 주동 세력의 사고와 과연 무엇이 다른가. 국민보다 뛰어난 정치인은 없고, 당원보다 훌륭한 정당인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공천을 달라는 얘기가 아닌가”라며 “다양한 말로 포장하고 결의에 찬 발언을 하지만 본인이 희생하겠다는 말은 없다. 불출마 선언도, 협치 출마도 없다. 오로지 본인과 본인을 따르는 몇 명이 의원을 챙기는 사적 욕망만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칙과 상식이라는 조칙을 만든 4인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며 “이들 역시 본인들의 기득권은 포기하지 않고 ‘결단’ 등 탈당을 암시하는 단어를 쓰

면서 심지어 본인 지역구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역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이 왜 국회의원의 공천 투쟁에 동원되어 자신들의 정치생명을 건 모험을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 전 대표 등은 모두 당과 사회의 원로들이다. 모범이 되어야 할 원로, 중진들이 오히려 욕망의 정치를 하고 있다”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기적 공천 투쟁이 제 그만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 임하며 마지막 공직 도전이라고 얘기했다”며 “그 약속대로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지금껏 당내 분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불어 ‘원칙과 상식’을 운운하는 4명의 국회의원도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본인의 과거와 당의 미래를 욕보이는 행동을 중시하길 요청한다”며 “지금처럼 행동해서 남는 것은 결국 국민과 당원의 엄중한 심판뿐”이라고 덧붙였다.

김수권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 직통전화 010-2400-7774

☎ 주문팩스 062-946-0053